

소류로

이 건물은 소류로입니다. 안뜰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있는 밧코로와 마주 보는 형태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이안쿄의 정전(正殿)이었던 조도인에서도 밧코로와 소류로, 이 두 누각은 동일한 위치에 건설되었습니다. 두 누각을 포함한 헤이안쿄의 대부분은 당나라(618-907)의 수도였던 장안(지금의 시안)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소류로와 밧코로라는 이름은 고대 중국의 천문학에서 동서남북의 수호신 중 동쪽의 청룡(일본어로 소류)과 서쪽의 백호(일본어로 밧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 수호신은 광범위에 걸친 중국의 철학인 오행사상(만물은 5 가지 원소로부터 생성된다는 사고방식)의 일부를 구성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오행이라는 총괄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현상 간의 상호 작용과 관계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우주의 주기에서부터 의학, 점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오행사상은 헤이안쿄의 위치와 설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헤이안 신궁에 위치한 두 누각의 이름과 오텐몬의 안쪽에 있는 데미즈야(신체를 정화하기 위해 손과 입을 씻는 장소)에 놓여진 석상이 백호와 청룡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헤이안 신궁에 있는 밧코로와 소류로는 헤이안쿄의 정전(正殿)이었던 조도인에 있던 누각을 당시 8 분의 5 비율로 축소하여 재현했습니다. 아름답게 경사진 처마에 장식으로 꾸며진 작은 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장식이라는 목적 외에도 망루로서의 방위 역할을 위해 세워졌다는 설도 있습니다.